

## 장애인 직업욕구와 직업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시각장애 대학생을 중심으로 -

안 은 속(대구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기본 근간으로 한 지금까지의 고용촉진정책을 통해 장애인고용률이 완만한 증가를 보여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내용면에서 장애인들의 직업적 욕구 충족과 너무나 큰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들에게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동일한 권익이 보장되는 취업상태 달성은 단순히 취업률의 증진을 관심하는 단계에서 결코 해결될 수 없다. 장애인 고용률증가를 가시적 성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현상의 원인규명에 근거한 문제제기와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이 따라져야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들의 취업문제의 원인이 단순히 장애인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그에 따른 차별관행에서만 기인하지는 않는다는 장애인취업유형결정에 대한 이중노동시장론의 이론적 근거를 기반으로 문제에 접근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대상은 시각장애라는 기능적 손상으로 인한 제약이 직무수행에 치명적인 제한을 초래한다는 일반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학습능력, 언어능력, 수리력, 손가락 재능등에 있어 뛰어난 경향성을 보이며, 또 최근의 산업구조가 지식기반 구조로 변모함에 따라 정보에 대한 집중력과 시각적 문서 접근 제한을 음성으로 대체하는 재활공학적 방안이 개발된 시각장애인들을 주 대상으로 하였다. 장애요인이외 여타의 요인들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취업을 위한 학력과 연령을 기준한 특정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시각장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수행된 본 연구결과 이들은 다양한 직업욕구를 지니고있었고, 안마업<sup>1)</sup>의 안정성 확보 보다 다양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강력히 희망하였다. 직업재활을 위한 희망서비스 조사문항을 통해서도 본인의 가용능력을 개발하기 원한다는 강력한 욕구와 직업훈련지원될 경우의 직업수행정도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표출되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직업훈련 여부가 취업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시각장애인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적성직종의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고 다양한 직업재활지원서비스가 이뤄지지도 못하고 있는 현재의 직업서비스에 대한 개선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시각장애대학생들의 직업관련한 다양한 직업욕구에 비해 현재 시각장애인들의 취업현황은 매우 제한적이다. 교육기회와 적성

1) 현재 시각장애인들은 전체 장애인들 중 가장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시각장애인들의 대다수는 안마업에 종사하고 있다.

에 맞는 직업능력배양의 훈련기회 제한이 결과적으로 이중노동시장 현상으로 귀결되고 시각 장애인 취업사의 일련의 문제점들을 고착화시키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일할 의사가 있는 장애인들에게 그저 최소한의 일자리만이 급여지원형태로 지원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무시한 획일적 차별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그릇된 관행이다. 또한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 자신의 능력에 따른 취업의 기회가 보장되기를 원하는 장애인의 취업욕구가 현재 장애인 직업지원의 방향에서 어느 정도 반영되고있는지 장애인들을 분리된 이차 노동시장에 고착시키는 인적 자원 형성에 대한 과정적 지원 양상들이 심도있게 제고 되어야한다.